

2019. 12. 6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9년 12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

에너지시민협력과장	김 연 지	02-2133-3580
시민참여기획팀장	윤 준 성	02-2133-3582
담 당 자	김 대 원	02-2133-3585
	장성열	02-2133-358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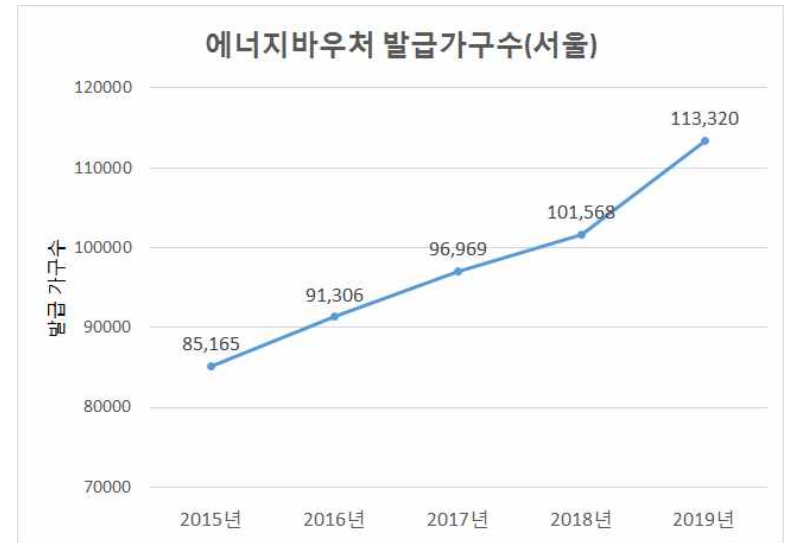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매수 : 3매

### 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

- '19년부터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지원대상 1만여 가구 확대
- 총 11만여 가구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.. 도시가스 등 선택 가능
- 3인 가구 기준 145,000원까지 가구원 수 따라 차등지급

-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'동절기 에너지바우처'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.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-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다.

-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도시가스,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.
- 대상자는 '요금차감' 방식과 실물카드인 '국민행복카드'를 발급받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.
  - \*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택1, 요금고지서에서 차감
  - \*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
- 올해부터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하여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.
- 서울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2015년도 8만5천여 가구에서 2019년도 11만3천여 가구로 시행 5년간 2만여 가구가 점차 증가하였다.



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연도별 발급가구 수

-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6,000원, 2인 가구 120,000원, 3인 이상 가구 145,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.
  - 단,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, 등유나눔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, 동절기 바우처 사용 전에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.
    - ※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, 등유나눔카드 중복지원(유사서비스 수급) 불가
  
-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.
  - 실물카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자정 전까지 결제 및 사용 가능하며, 가상카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4월말까지(동절기)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.
    - ※ 하절기 냉방바우처를 지원받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지만, 동절기 잔액은 하절기에 추가 사용이 불가능함.
  
-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“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·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”며 “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 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